

研究論文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김병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한국고대사 전공
kbn1004@korea.kr

I. 머리말

II. 서기 660년 백제 부흥 세력의 사비 공략

III. 서기 661년 고사비성 전투의 경과와 영향

IV. 맺음말

I. 머리말

서기 660년 7월 백제는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고, 곧이어 의자왕이 항복함으로써 혼란에 빠지게 된다. 왕조국가 체제에서 왕의 항복과 수도의 함락은 곧 멸망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백제는 중앙정부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인 저항이 진행되었고, 이를 우리는 이른바 ‘부흥운동’이라 일컫는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들을 축적하였다.¹⁾ 따라서 백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외세 배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의 폭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부흥운동의 시작 및 확산과 밀접한 중심지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이에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초기 부흥운동의 세력 범위와 중심지에 관한 문제를 다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서기 660년 7월 이후 전개된 부흥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제 수도에 거점을 마련한 당과 신라 세력의 축출을 통해 국가를 이어가려는 노력이었다. 이에 대해 신라와 당 역시 적극 대응함으로써 나·당군과 백제 부흥군은 여러 지역에서 사활을 건 전투를 벌였다. 따라서 이 흔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증만 이루어지면, 백제 부흥 세력의 성장과 확산 그리고 세력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그중에서도 서기 660년 7월 이후부터 서기 661년 6월 사이 사비성 포위 공방, 웅진강구 전투, 두량윤·고사비·주류성 전투 등 나·당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각축 과정은 당시 백제 지역의 향후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세밀한 추적과 합리적 이해가 백제민들이 추구한 진정한 ‘부흥’의 실체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에 우선 서기 660년 7월 이후 전개된 초기 부흥운동과 부흥군의 사비 포위 공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1) 최근 성과와 관련된 연구서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일조각, 2003);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경, 200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서경, 200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2007).

이를 통해 서기 661년에 재개된 부흥군의 공세와 나·당의 대응 방법 및 규모 그리고 신라와 백제 부흥군 사이의 접전 지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의 지역적 범위와 이후 국가 부흥의 거점이 어떻게 고착되었는지, 나아가 부흥운동이 국가의 연속성 확보에 어떠한 한계점을 갖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서기 660년 백제 부흥 세력의 사비 공략

1. 부흥군의 사비 공략 의미

서기 660년 7월 18일에 당과 신라의 연합군은 백제 사비도성을 함락시키고, 의자왕에게서 항복까지 받아내었다. 이로써 백제국은 공식 항복이라는 상황에 놓였고,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이 일시 마비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백제국의 모든 지역을 당과 신라에게 점령당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의자왕이 투항한 직후에도 남잠성과 정현성, 두시원악, 임존성 등 사비도성 주변의 여러 지역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은 채 당과 신라군에 대항하였다.²⁾ 남잠성, 정현성(대전 대덕구 흑석동산성) 등에는 백제 군사가 농성 중이었고, 두시원악에서는 좌평 정무가 진을 치고 당과 신라군들을 공격하였으며, 임존산(예산군 대흥면 봉수산)에도 크고 작은 목책이 세워져 많은 군사들이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주둔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백제라는 이름 아래 잠재되었던 역동성이 곧바로 발산되어 국가를 구원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두시원악의 좌평 정무, 구마노리성의 여자진³⁾, 임존성의 흑치상지⁴⁾, 그리고 주류성의 복신·도침⁵⁾ 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 조직들 중 초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임존성이었다. 이곳은 흑치상지뿐만 아니라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신과 도침마저도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일본서기』

2)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7월조.

3) 『일본서기』 권26 제명 6년 9월조.

4) 『삼국사기』 열전 흑치상지조.

5) 『구당서』 열전 동이 백제조.

에는 서기 660년 9월 왜국에 파견된 백제 사신들이 복신 등이 이미 7월에 임사기산에 영채를 세우고 군사를 모았다고 전하였다. 또 <당유인 원기공비>에도 도침과 복신의 근거지를 임존이라 하였다. 당시 임존산에는 적어도 3만 이상의 ‘많은 군사(兵多)’가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크고 작은 목책을 설치하고, 벌 때처럼 고슴도치처럼 산과 골짜기를 가득 채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험하게 느낀 소정방이 군사를 독려하여 7월 26일에 임존 대책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저항의 근거지인 임존성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왕도를 함락시키고 왕을 사로잡음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여긴 소정방은 서둘러 군대의 철수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서기 660년 9월 3일에 백제 왕과 왕족 및 신료 93명과 백성 1만 2천 명을 포로로 하여 군대와 함께 사비(부여)에서 배를 타고 당으로 돌아갔다.⁶⁾

백제를 멸망시킬 당시 출병한 당군은 13만이었고, 신라군은 5만이었다. 나당 연합군은 도합 18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백제 도성을 순식간에 함락시켰다. 그러나 당이 생각하는 동방 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구려였기에 사비성을 함락시킨 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주력 대부분을 본토로 철수시켰던 것이다. 신라군 역시 주력은 이미 삼년산성으로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백제 땅에는 유인원의 1만 주둔군으로서 백제부성을 지키도록⁷⁾ 하였고, 여기에 김인태와 일원, 갈나 등이 거느린 신라군 7천이 보조하는 정도여서 사비도성 함락 직후부터 일어난 백제 부흥 세력을 대적하기는 어려웠다.⁸⁾

소정방이 이끄는 당의 ‘대군이 돌아간 후(大軍廻後)’에 복신 등은 곧바로 부흥군을 일으켜 백제부성인 사비성⁹⁾ 탈환을 위한 거병을 단행하였다.¹⁰⁾ 당시 백제군은 당 본진이 모두 철수하고 나당 주둔군 1만 7천 명만이 남았던 사비성을 9월 23일부터 공격하였다.¹¹⁾ 금강의 서쪽(江西)인 임존산의 3만 세력과 주변 구마노리의 여자진¹²⁾, 두시원악의 정무

6)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9월 3일조.

7) 『자치통감』 권200, 당기5, 용삭 원년 3월조.

8) 김영관, 앞의 책, 143-144쪽.

9) 김수미, 「백제부성의 실체와 웅진도독부 체제로의 전환」, 『역사학연구』 28(2006), 34쪽.

10)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9월조.

12) 1차 사비성 포위 공격의 주체를 좌평 여자진으로 보기도 한다. 노중국,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서경, 2004), 84쪽.

등이 합세하였을 것이다. 부흥 연합 세력은 나당 주둔군의 본거지인 사비성(백제부성)을 포위하며 조금씩 전진하여 우선 성 바깥의 목책을 깨뜨리고, 주둔군의 군량을 모두 빼앗는 등의 성과를 거둔 후 다시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당 주둔군 사령관인 유인원은 군대를 내보내 간신히 막아냈으나 백제군은 오히려 사비성 가까운 4곳에 성을 쌓아 포위망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이례성 등 주변 20여 성이 부흥군에 호응하게 되자 당군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백제 부흥군의 치열한 공세로 사비성이 얼마나 위급하였는지는 유인원 본인이 남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책을 세우고 영채를 이어 오래 머무른 우리 군대를 공격해서 포위하였다. 雲梯로 굽어보고 地道로 환히 들여다보며, 돌을 치고 화살을 날리는 것이 별처럼 달리고 비처럼 떨어지며 밤낮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아침저녁으로 세력을 믿고 침범하면서도 스스로 일컫기를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잇는다고 하였다.¹³⁾

<당유인원기공비>

이에 따르면 백제군은 사비성 주변에 목책을 세우고 영채를 준비하게 늘어놓은 채 당군을 압도하였고, 구름사다리(운제), 포차(발석차) 등의 공성 무기를 동원하고 땅굴을 파는 등 조직적인 공세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개하였으며, 이미 진중에는 ‘백제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자(興亡繼絶)’는 의식과 선동을 통해 부흥군의 연대를 강화하고 적들의 사기를 꺾으려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금성(경주)으로 철군하기 위하여 삼년산성에 있던 신라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군의 사비성 포위 보름 만인 10월 9일에 신라 무열왕은 태자 김법민과 함께 각 부대를 거느리고 다시 사비성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례성(논산 연산)을 공격하여 10월 18일 함락시키고, 10월 30일 사비남령에 주둔하던 부흥군을 공격하여 물리치고, 다시 11월 7일에는 사비성의 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부흥군 근거지인 왕흥사잠성을 함락시켜¹⁴⁾ 사비성의 위급함을 구하였다.

13) 布柵連營 攻圍留連 雲梯俯瞰 地道旁通 擊石飛矢 星奔雨落 晝夜連戰 朝夕憑陵 自謂興亡繼絶.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다시 식량을 날라서 마침내 1만 명의 중국 병사들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머물러 지키던 굶주린 군사들이 자식을 서로 바끼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¹⁵⁾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그런데 위의 기록은 신라군의 공격 목표가 백제 부흥군의 궤멸보다는 당 주둔군에 대한 호구지책 마련이었음을 보여준다. 무열왕 7년(660) 9월 23일 기록에는 백제 부흥군이 사비남령에 45책을 세웠다고 하였고, 문무왕 11년 기록에도 “부성의 가까운 4곳에 성을 쌓아(府城側近四處作城)” 포위했다고 하였으므로, 무열왕 7년 10월 30일에 신라군이 공격한 사비남령의 군책과 왕흥사잠성은 아마도 4柵城 중의 2곳을 의미하지 않을까 한다. <당유인원기공비>에도 “柵二城 時屬窮 冬□□□□”이라 한 것을 보면 사비성 주변의 백제 부흥군 목책 중에 신라에 함락된 것을 두 개가 맞는 듯하다. 그렇다면 서기 660년 10월에 신라 구원군은 백제 부흥군을 완전히 물리친 것이 아니라 고립된 사비성의 나당군에 대한 보급로 개설이라는 응급조치만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라군의 움직임이 처음부터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것은 신라군이 고립된 사비성의 포위를 풀고자 사비남령의 군대 목책을 공격한 바로 다음날인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성주인 필부를 죽였다고 나오기 때문이다.¹⁶⁾ 필부는 20여 일을 싸우다가 사망하였으므로¹⁷⁾ 고구려는 아마도 10월 10일 정도에 칠중성을 공격한 것이 된다.¹⁸⁾ 이럴 경우 무열왕이 사비성에 고립된 나당 주둔군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간 바로 다음날 고구려의 신라 공격이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러므로 신라의 공격은 칠중성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11월 7일에 왕흥사잠성을 깨뜨린 후에는 곧바로 부대를 정비하여 11월 22일 철수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서기 660년 9월 23일에 시작된 백제 부흥군의 사비성 포위 공략은 신라 원군의 10월 30일과 11월 7일의 사비남령 군책과 왕흥사잠성

15) 復運糧食 遂使一萬漢兵 免虎吻之危難 留鎮餓軍 無易子而相食.

16)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11월 1일조.

17) 『삼국사기』 열전 필부조.

18) 심정보, 「부흥군의 붕괴」,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2007), 159쪽.

함락으로 일시 주춤거렸으나 여전히 진행상태임을 알 수 있다.¹⁹⁾ 왜냐하면 부성 부근의 2책은 여전히 건재하여 언제든지 사비성의 빈틈을 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흥군의 주된 전장이 사비남령, 왕흥사잠성 등 사비성 주변에서 진행되었던 것은 사비성에 주둔한 나당군을 축출하여 백제 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백제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출발선이었기 때문이다.

2. 국가의 연속성 확보와 새로운 중심지 구상

백제 부흥군이 각처에서 일어난 기본적인 배경은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복신이나 도침, 정무, 여자진 등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단절된 왕통을 이으면 국가는 계속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흥운동은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왕조의 단절이나 국가의 멸망에 따른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당시 백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국가적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유지해나가는’ 일련의 노력에 불과하였을 수도 있다. 서기 660년 9월 23일에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고, 10월에는 왜에 사신을 보내 왕자 부여풍장의 왕위 계승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백제 부흥운동의 시작과 끝을 살펴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서기 660년 7월 18일에 백제 의자왕이 적들에게 항복한 순간부터 살아남은 백제의 정치 세력은 새로운 왕권의 수립을 향한 움직임을 개시하였다는 점이다. ‘부흥운동’은 바로 그러한 정치행위의 일단일 뿐이다. 다만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선적인 이해에 몰입하여 ‘야와 ‘비야’의 투쟁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외세의 축출 노력과 실패, 나아가 ‘멸망’이라는 의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부흥을 실행하고자 한 기저, 즉 왕통의 회복과 국정 재건이라는 내부적인 정치행위란 관점에서 ‘부흥운동’을 살펴는 게 더욱 중요하다.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일시 붕괴된 상태에서 자신과 주변의 안위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12월에 고구려 공격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부흥군을 현지 주둔군만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김중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77쪽). 당은 다음 해 4월에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6월에 신라는 당의 참전 요구에 따라 출정하였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각자 처신에 따라 행동하였던 부흥 세력들은 여건만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뭉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삼국사기』 무열왕 7년 7월 기록의 남잠성, 정현성, 두시원악 등은 바로 나당 침략군에게 노력질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위조직체나 마찬가지로였다. 스스로 국가 재건이나 왕통의 연속성 확보 같은 정치적 행위나 행동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임존산의 복신과 도침 세력은 조금 달랐던 듯하다. 그들은 당이 보기에 '반역을 도모'할 정도로 큰 뜻을 품은 자들로, 무리를 규합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며'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에 항복하였던 흑치상지의 무리들까지 합류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더군다나 이 세력을 위협하게 느낀 당군의 공격까지도 물리치면서 이들에 대한 백제인들의 신망은 더욱 높아만 갔을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 제명 6년 기사에 복신과 여자진이 함께 언급된 것을 보면, 그들은 일본에 사신이 도착한 9월 이전에 이미 연계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각기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합 자체가 더욱 커다란 세력의 전제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백제 부흥운동의 선도 내지 헤게모니는 복신과 도침으로 대변되는 임존산 세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삼국사기』 열전을 보면 흑치상지도 부흥운동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의자왕 항복 이후 당군에 투항한 전력이다.²⁰⁾ 이는 백제 부흥 세력이 힘을 얻을수록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대한 힘을 구축하였더라도 그는 임존성과 함께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백제를 열어 갈 리더로서 역할을 펼치기에는 힘든 처지였다. 이것은 정무에게도 해당된다. 만일 기록대로 그가 좌평이었다면, 국정의 최고담당계층으로 백제 조정의 패착과 항복을 초래한 것과 무관할 수 없다. 이 점이 그를 부흥운동 수뇌부임에도 불구하고 부흥군을 리드할 정점에 설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대로라면 결국 당시 부흥운동은 복신·도침과 여자진을

20) 흑치상지의 항복이 의자왕의 권유와 당군의 시한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도학, 『백제 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1999, 98쪽)이라 보기도 하지만, 서기 663년에 다시 투항하여 임존성을 공략한 것을 보면 그의 '타고난 처세술'(도야마 미쓰오 저, 이성범 역, 『우리가 몰랐던 왜군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 전투』, J&C, 2002, 135쪽)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정점으로 정무와 흑치상지 등이 참여하는 연합 세력으로 재편되어 점차 조직화되었고, 이를 통해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 모색하는 한편 나아가 새로운 왕위의 계승을 통해 백제의 '재조(再造)' 내지는 '계속'을 실행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부흥 세력은 나당 주둔군을 몰아내기 위해 새로운 중심 근거지의 필요성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서기 660년 7월 사비도성이 함락된 후 부흥군이 즉각적으로 재탈환하려 한 것은, 바로 도성을 수복하여 백제국의 연속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이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여 여전히 사비성은 나당군의 수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부흥운동은 탄력을 받아 세력을 확산하는 상태여서 초기 금강 서쪽[江西]의 임존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부흥운동은 점점 금강 동쪽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이 단순한 일부 거병 세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백제 전 지역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수뇌부도 느꼈을 것이다.

백제는 이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이 있다. 그것은 서기 475년 고구려의 침공으로 수도인 한성이 유린당하고 왕마저 죽은 상황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여 국가를 재건하였다. 따라서 사비성이 침공당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모색되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주목받은 곳은 아마도 나당군의 침략이 비껴간 금강 이남의 남쪽 지역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곳에는 백제 무왕이 수도로서 경영하려던 금마저(익산)가 자리하였고, 백제의 광역 지방조직인 5방 중 중방 고사성도 있었다.

물론 임존성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임존성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병을 수행하고 일시적 조직을 추스를 거점 역할은 가능하나 중심지로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사비성이 여전히 나당군의 수중에 있는 한 임존성은 북으로는 신라 국경에, 남으로는 당군에 낀 형편이다. 『일본서기』에는 서기 660년 10월에 풍왕의 귀환을 요청하였다고 나온다. 풍왕은 서기 661년 9월에 비로소 귀환²¹⁾ 하지만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새롭게 즉위하는 왕과 도성이

21) 정효운, 『고대 한일 정치교섭사 연구』(학연문화사, 1995), 161쪽.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만 하였다. 그런데 임존성의 위치는 당군이 위치한 사비나 웅진부성의 북쪽이어서, 당군과 신라군이 남북으로 공격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한 남쪽 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겨 민심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폭넓은 후방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합법적 정부를 구성하고 침략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비도성의 함락으로 금강 유역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로를 통한 외국과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항구 기능을 수행할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남쪽 지역은 임존성보다는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교섭에도 유리한 고사성²²⁾이나 공주, 부여로 들어가는 해상로의 길목이며, 대중국대외 사절선이 빈번하게 드나들던 부안 죽막동 유적²³⁾ 등과 같이 항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녔기에 부흥운동의 총본영²⁴⁾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결국 복신 등의 부흥군 주도 세력은 사비도성의 탈환이 단기에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인 대당 무력 투쟁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저항의 근거지이자 수도의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방 고사성 일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Ⅲ. 서기 661년 고사비성 전투의 경과와 영향

1. 전개 과정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조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기 660년 9월 23일에 개시된 백제 부흥군의 사비성 당군 포위전은 같은 해 10월 30일에 신라군의 부흥군 공격으로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부군 산천 항목에 “대포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訥堤川의 하류가 되는데 조수가 드나든다[大浦(在郡西十里 訥堤川下流 潮水往來)]”고 하여 중방 고사성의 해상 교통을 담당하던 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병남,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전북사학』 31(2007), 23쪽.

23) 우재병, 「백제 서해안지역 죽막동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왜인의 흔적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33(2010), 292-293쪽.

24) 이도학, 「백제 부흥운동의 시작과 끝 임존성」,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경, 2004), 179-180쪽.

인해 포위진이 일부 뚫리면서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였겠지만 부흥군은 이듬해 이른 봄에 곧바로 사비성 공격을 재개하였다.

㉠ 이때 낭장 유인원은 백제부성에서 머물러 지키고 있었다. 도침 등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였다. 대방주자사 유인제가 왕문도를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고 지름길로 신라군을 발동하여 함께 약속하여 유인원을 구하고자 싸우면서 나아가는데 향하는 곳마다 모두 함락시켰다. 도침 등은 웅진강구에 2책을 세우고 관군을 막았다. 유인제는 신라병과 함께 사방에서 공격하니 적들은 물러나 목책으로 달려 들어갔으나 물에 막히고 다리가 좁아 물에 빠져 죽거나 전사한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도침 등은 이에 유인원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고 신라 군사도 양식이 다 떨어져 돌아갔다. 이때가 용삭 원년 3월이었다.²⁵⁾ **두당서 열전동이 백제**

㉡ 봄 2월, 백제 잔적이 사비성을 공격하였다. 왕은 이찬 품일을 大幢 장군으로 임명하고, 잡찬 문왕과 대이찬 양도와 아찬 충상 등으로 하여금 돕게 하였다. 또한 잡찬 문충을 上州 장군으로 임명하고, 아찬 진왕으로 하여금 돕게 하였으며, 아찬 의복을 下州 장군, 무홀·옥천 등을 南川 대감, 문품을 摺幢 장군, 의광을 郎幢 장군으로 임명하여 사비성을 구원하게 하였다. 3월 5일, 중도에 이르자 품일이 휘하의 일부를 나누어 두량윤(윤을 '伊'라고도 한다)성 남쪽에 먼저 가서 진지를 만들 곳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백제 사람들은 우리 진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급습을 해왔다. 우리 군사들이 놀라 패주하였다. 12일, 대군이 고사비성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두량윤성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승리하지 못하였다.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철수하면서 대당과 서당을 먼저 보내고, 하주의 군사를 뒤따라오게 하였다. 그들이 빈골양에 이르렀을 때, 백제군을 만나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사망자는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군수품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 상주와 낭당은 각산에서 적을 만나 공격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백제의 진중으로 들어가 2천 명을 참살하였다. 왕은 군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김순, 진흙, 천존, 죽지를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가시혜진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가소천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의 패전 책임을 물어 정도에

25) 時郎將劉仁願 留鎮於百濟府城 道琛等引兵圍之 帶方州刺史劉仁軌 代文度統衆 便道發新羅兵 合契以救仁願 轉鬪而前 所向皆下 道琛等於熊津江口 立兩柵以拒官軍 仁軌與新羅兵 四面夾擊之 賊衆退走入柵 阻水橋狹 墮水及戰死萬餘人 道琛等乃釋仁願之圍 退保任存城 新羅兵士 以糧盡引還 時龍朔元年三月也.

따라 벌을 주었다.²⁶⁾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

- ㉔ (현경) 6년에 이르러 복신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의 동쪽 땅을 침범하여 빼앗았으므로, 웅진의 중국 군사 1천 명이 적의 무리들을 공격하러 갔다가 적에게 격파당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싸움에 패한 이후 웅진에서 군사를 요청함이 밤낮 계속되었는데, 때마침 신라에는 전염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주류성을 포위하러 갔으나 적이 (우리)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달려와 공격하여 많은 군사와 말을 잃고 이득 없이 돌아오게 되니, 남쪽의 여러 성들이 일시에 모두 배반하여 복신에게 속하였습니다.²⁷⁾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 ㉕ (용삭 원년 3월) 유인래는 군사가 적으므로 유인원과 군사를 합쳐서 군사들을 쉬게 하고 (고종에게) 표를 올려 신라와 세력을 합하여 도모하기를 청하였다. 신라왕 춘추가 당의 조서를 받고, 장수 김흠에게 군사를 주어 유인래 등을 구원하게 하였다. 김흠이 고사에 이르자 복신이 그와 전투를 벌여 패배시켰다. 김흠이 갈령도에서 도망하여 돌아간 후 신라는 감히 다시 출동하지 못하였다.²⁸⁾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

위 기록들은 서기 661년 2월에서 4월까지 당·신라와 백제 부흥군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된 전투를 보여준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는 혼란을 준다.

우선 첫 번째로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포위 공격한 것은 2월이 시작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웅진강구 전투와 두량윤·고사비성 전투를 별개로 보면, 시기상 신라군은 두 개의 작전에 동시에 투입된

26) 春二月 百濟殘賊 來攻泗泚城 王命伊滄品日爲大幢將軍 逆滄文王 大阿滄良圖 阿滄忠常等副之 逆滄文忠爲上州將軍 阿滄眞王副之 阿滄義服爲下州將軍 武歎·旭川等爲南川大監 文品爲誓幢將軍 義光爲郎幢將軍 往救之 三月五日 至中路 品日分麾下軍先行 往豆良尹(一作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陣不整 猝出急擊不意 我軍驚駭潰北 十二日 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 不克 夏四月十九日 班師 大幢誓幢先行 下州軍殿後 至賓骨壤 遇百濟軍 相鬪敗退 死者雖小 失亡兵械輜重甚多 上州郎幢遇賊於角山 而進擊克之 遂入百濟屯堡 斬獲二千級 王聞軍敗大驚 遣將軍金純·眞欽·天存·竹旨濟師救援 至加尸兮津 聞軍退至加召川 乃還 王以諸將敗績 論罰有差.

27) 至六年 福信徒黨漸多 侵取江東之地 熊津漢兵一千 往打賊徒 被賊摧破 一人不歸 自敗已來 熊津請兵 日夕相繼 新羅多有疫病 不可徵發兵馬 苦請難違 遂發兵衆 往圍周留城 賊知兵小 遂卽來打 大損兵馬 失利而歸 南方諸城 一時摠叛 並屬福信.

28) 仁軌以衆少 與仁願合軍 休息士卒 上表請合新羅圖之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 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敗之 欽自葛嶺道遁還 新羅不敢復出.

것이 된다. 더 나아가 두량윤·고사비성 전투에서도 신라의 진격로가 두 방향이었다는 견해²⁹⁾에 이르면 당시 신라는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웅진강구 전투는 3월에, 그리고 두량윤·고사비성 전투는 4월 19일에 신라군이 철수하면서 끝나지만 시작점은 두 전투가 모두 3월이다. 따라서 시간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작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는 두량윤성과 주류성, 나아가 고사비성의 관계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사료 ㉞에 나오는 고사비성과 두량윤성을 각기 전북 정읍 고부와 충남 청양 정산으로 보아왔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신라군의 작전 반경이 너무 크고 멀다는 것이다. 고사비성과 두량윤성 사이에는 동진강과 금강이 가로막아 신라군이 고사비성 밖의 진영에서 출발하여 두 강을 도하하고서 두량윤성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古沙比城’을 ‘古泗泚城’의 오기로 보아, 신라군이 사비성 바깥에 진영을 설치하고 가까이의 두량윤성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³⁰⁾도 있다.

그런데 사료 ㉟에는 신라군의 공격 목표가 두량윤성이 아니라 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이었다고 나타난다. 여기에다가 사료 ㉞의 고사비성(정읍 고부)과 신라군의 퇴각로인 빈골양(정읍 태인) 등을 고려하면 두량윤성은 주류성의 외성³¹⁾ 내지는 주류성 자체³²⁾를 의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사료 ㉠에도 백제 부흥군이 신라군을 고사(古泗, 고사비성)에서 요격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사비성 주변에서 전투가 벌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두량윤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에 나·당군이 ‘웅진강구’ 전투에서 패배한 후 퇴각한 백제군을 따라 임존성을 공략하였다면 두량윤성은 정산으로 볼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백제 사비시대 이래 ‘중방 고사성’이었던³³⁾ 고사부리(고사비=고사;

29) 사비성 북부의 두량윤성(정산)과 남부의 고사비성(고부) 방향으로 출동하였다는(노중국, 앞의 책, 221쪽) 데에 필자도 동조하였었다(김병남, 앞의 논문, 2007, 24쪽).

30) 심정보,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2007), 169쪽.

31) 최병운, 『전북역사문헌자료집』 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 편(전라북도, 2000), 14쪽의 주 106번.

32) 김영관, 앞의 책, 138쪽.

33) 박현숙, 「백제 사비시대의 지방통치와 영역」, 『백제의 지방통치』(학연문화사, 1998),

정읍 고부)란 명확한 지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릉윤성을 정산으로 보는 것은 지정학상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두릉윤성 자체가 주류성이 될 수도 없으니, 이는 중방지역 내인 고사성 주변과 연계된 지역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두릉윤’을 다르게는 ‘두량’이라고도 불렀다 하므로 음이 비슷한 완산군 영현의 ‘두이현’이다.

두성현은 본래 백제 두이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이성현이다.³⁴⁾ 『삼국사기』 잡지5 지리3 전주

왜냐하면 ‘豆良尹城’을 ‘尹城’이라고 약칭하였던 것과 대비하여 ‘豆良伊城’ 또한 ‘伊城’으로도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이라고 불려도 두릉윤성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백제 ‘豆伊縣’ 또한 ‘伊縣’이라고 약칭되었기에 신라에서는 이성현이라 개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³⁵⁾ 현재 완주군 이서면인 백제 두이현은 완산군 관내이므로 북으로는 쿠데타를저군(익산)이 지척이고, 서로는 피성(김제)과 닿고, 남서쪽으로 고사비성(정읍)과 연결된다. 신라군이 고사비성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맞닥뜨린 곳이 ‘두량’이었다. 이렇게 두량(완주 이서), 고사비(정읍 고부), 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을 추정해놓고 보면 사료 ⑥의 신라 대군이 작전을 전개하는 방향과 거리상으로도 어느 정도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또 지리지에는 두이현을 달리는 ‘往武’라 불렀다는 기록도 나온다.³⁶⁾ 전형적인 한자식 지명인데, 이러한 지명 변화는 고사부촌을 ‘平倭’ 현 거사물을 ‘隆化’현이라 한 것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고사부촌은 고사비성(고사부리성)이고, 거사물은 거물성과 관련 있음을 고려할 때 나당군과 백제 부흥군의 접전이 벌어졌던 기억과 관련된 지명 개명임을 엿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왕무’라 불린 두이현도 이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것이다.³⁷⁾

182쪽.

34) 杜城縣 本百濟豆伊縣 景德王改名 今伊城縣.

35) 정재윤,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 정책 -완산주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8(2002), 146쪽.

36) 『삼국사기』 잡지6 지리4 백제조. “豆伊縣(一云往武)”.

그렇다면 세 번째는 왜 복신 등 부흥군은 두량야·고사비·주류성 일대에 주목하였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백제 주류성의 위치 추정에 집중하여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부분이 있다.

만일 백제 부흥군의 최종 목적이 백제의 '再造' 내지 '再建'이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왕의 옹립과 왕도의 선정이다. 이 중 왕은 이미 부여풍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왕도의 선정이 필요하였다. 실제 갑작스레 결정된 웅진은 차치하더라도 사비나 금매(익산) 등을 보면 그것은 험준한 산성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성(위금암산성)은 방어에는 유리한 입지일지 몰라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로서의 기능성은 모자란 곳이었다.

州柔는 田地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니 農蠶할 땅이 아니요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이곳에 있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피성으로 옮기는 게 좋다. 피성은 서북에는 古連巨涇의 물이 떠를 두르고, 동남쪽에는 깊은 진흙의 큰 제방이 있어 방비하기 좋다. 사방에 논이 있어 도량이 파여 있다. 비가 잘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것이 삼한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다.³⁸⁾

『일본서기』 권27, 천지 원년 12월

위의 기사는 서기 662년 12월에 제기된 피성으로의 천도 과정에서 부여풍과 복신 등이 논의한 내용이다. 피성은 辟城, 즉 '辟支'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의 전북 김제이고, '깊은 진흙의 큰 제방'은 벽골제를 가리키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³⁹⁾ 이 시기는 풍왕과 복신이 부흥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팽팽한 경쟁관계였을 정도로 이해를 달리하는 사이였음에도 별다른 충돌 없이 천도가 추진되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삼한에서 가장

37) 두이현을 두량야성으로 볼 때 주변 산성의 존재 유무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좌평 정무는 특정 산성이 아니라 '진을 쳤다[屯]'고 나타나고, 또 신라 상주군·낭당군과 싸운 각산의 부흥군도 '성'이 아니라 '屯堡'를 근거로 하였다. 물론 '진[屯]'에 산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木柵 정도라면 모르지만 '성곽'이라 할 방어시설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므로(서정석, 「사비도성의 방비체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7, 115쪽), '두량야성'이라고 나오더라도 반드시 '성'의 존재 여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38) 此州柔者 遠隔田畝 土地磽确 非農桑之地 是拒戰之場 此焉久處 民可飢饉 今可遷於 避城 避城者 西北帶以古連巨涇之水 東南據深泥巨堰之防 繚以周田 決渠降雨 華實之毛 則三韓之上腴焉.

39)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푸른역사, 1997), 247쪽.

기름진 곳은 지금도 호남평야라 부르는 곡창지대로 익산-김제-부안-정읍 일대를 아우르는 기름진 땅이며 백제시대에는 중방 고사성 지역이었다.

따라서 백제 부흥군은 사비성 탈환이 늦어짐에 따라 이곳에 관심을 집중하고 새로운 수도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정부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물론 후보지는 이 언저리에 있는 금마(익산), 고사(정읍 고부), 피성(김제) 등이었을 것이고, 주류성(부안)은 유사시 왕실과 정부가 대피할 보조성 격의 위치였다고 짐작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부흥운동의 진행에 따라 당이나 신라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신라와 당 또한 ‘주류성의 함락’이야말로 부흥운동을 종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기에 사료 ㉔처럼 주류성을 포위하였다거나, 문무왕 3년 기사에 두릉윤성·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여 모두 항복시켰다고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료 ㉕에 나오는 ‘웅진강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소정방 열전과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기사에는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이 진입한 기벌포를 ‘웅진강구’나 ‘웅진구’라 표현하였다. 이에 백제에서 부를 땀 ‘백강’, 당에서 부를 때는 ‘웅진강’이란 입장⁴⁰⁾에서 금강 하구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유인케 자신이 고구려 전선에서 수군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던 경험과 연관시켜 신라 수군과 함께 금강 하구인 ‘웅진강구’에서 백제 부흥군과 싸워 이긴 후 수로를 통해 사비성으로 진격한 것⁴¹⁾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기 661년 2-4월 사이에 벌어진 전개 과정을 보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유인케는 전임 도독인 왕문도를 대신하여 백제를 다스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전임자는 서기 660년 9월 28일 삼년산성에서 신라왕과 회담하던 중에 급사하였다고 나온다. 이는 이후 그의 시신과 호종 군사들이 여전히 삼년산성에 남았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물론 이들이 서기 660년 10월 무열왕의 사비성 구원 출병 때 유인원이 농성 중인 사비성으로 합류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은 “머물러 지키던 굶주린 군사들이 자식을 서로 바퀴 잡아먹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불안정한 지역이라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군대의 특수성을 강조하더라도 통수권자가 죽어버

40)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2004), 222-226쪽.

41) 김영관, 앞의 책, 137쪽.

려서 별도의 명령 계통이 없으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국인 당의 관리와 군사가 소국 신라의 지휘 아래 군대를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왕문도의 시신과 호위군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 채 본국의 새로운 명령권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쪽을 택하였을 것이다.

이럴 경우 새로 부임하는 유인케의 행선지는 웅진이 아니라 삼년산성이어야 한다. 공적 임무의 기본은 관직과 업무의 인수인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인케는 군대와 함께 곧장 금강 입구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당항성에 내린 후 직산-진천-청주를 거쳐⁴²⁾ 삼년산성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전임자의 官印 인수와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임무를 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가 ‘웅진’이었을 것이다. 전임 왕문도의 직위가 바로 ‘웅진도독’이었고, 동시에 사비성의 당군을 구원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웅진강은 공주 부근을 흐르는 금강이고, 백강은 부여 부근을 흐르는 금강의 명칭⁴³⁾이란 견해처럼 사료 ㉔의 ‘웅진강구’는 웅진 부근에서 찾아야만 한다. 즉, 웅진 근방의 강어귀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웅진강구라 한 것이지만 일 금강 하구였다면 당연히 ‘백강구’라 불러야 했을 것이다.

2. 서기 661년의 공방과 부흥운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웅진강구 전투와 고사비성·두량윤성 전투 관련 기록의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서기 661년 2-4월 사이에 있었던 나당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사이에 벌어진 공방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한다.

서기 661년 2월 초 백제 부흥군의 2차 사비성 공략이 개시된 때를 전후로 새롭게 백제 고지를 진압하기 위해 임명된 유인케가 도착하게 된다. 그는 전임 웅진도독인 왕문도의 관인과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곧장 삼년산군으로 이동하였다.

42)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학연문화사, 1999), 128쪽.

43) 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7), 244쪽.

표1-서기 661년의 신라 진압군 편성 예상표

부대명	주둔지	장군명	병력 수	합계	지원병 (30%)	총계
대당	왕경	김품일	1,500	6,000	4,950	21,450
		김문왕	1,500			
		김양도	1,500			
		부여총상	1,500			
서당		문품	1,500	1,500		
낭당		의광	1,500	1,500		
상주	경북 구미 선산	문충	1,500	3,000		
		진왕	1,500			
하주	경북 경산	의복	1,500	1,500		
남천주	경기 이천	무염	1,500	3,000		
		육천	1,500			
구원군	왕경	김흡순	1,500	6,000	1,800	7,800
		진흡	1,500			
		천존	1,500			
		죽지	1,500			
합계			22,500		6,750	29,250

그곳에서 유인궤는 왕문도의 무리를 통솔하고(사료 ㉑), 신라왕 김춘추에게 조속히 군사를 내리는 조서를 내렸다(사료 ㉒). 이에 신라는 전염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켰다(사료 ㉓). 당시 신라군은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예 부대를 구성하고 11명의 장군이 지휘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김순 등 네 명의 장군이 동원되었다(사료 ㉔).

신라의 군사 편제상 장군 1명당 약 1,5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보면⁴⁴⁾, 백제 부흥군 진압을 위해 동원된 병력 수는 약 2만 2,500명 정도였고, 여기에 치중병, 즉 전투지원병 30%를 더하면 총 군세는 약 3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기 660년의 백제 원정 시 정병 5만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다. 당시 김유신 등이 거느렸던 정병 5만은 전투병이었고, 별도로 무열왕이 머물렀던 금돌성에 후방 지원 등의 부대가 있었다면 신라는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약 6-7만 정도를 동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서기 661년의 고사비성 전투에 출전한 신라군은 동원 가능한 군사력의 절반 정도지만 웅진도독부에 당군과 주둔한 부대,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할 군사력 등을

44) 이상훈,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2011), 184-187쪽.

고려하면 실제 동원 가능한 최대 병력이었다. 더군다나 서기 660년의 정병 5만 동원 시에는 구체적인 부대 편성이 보이지 않는 반면 서기 661년의 신라군에 조직적이고 강대한 군단 편성이 나타나는 점은 신라의 군사 조직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하였음⁴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군사의 효율성은 더 강했을지도 모른다.

유인궤가 거느린 당병은 애초부터 그 수가 매우 적었으므로(사료 ④) 당군만으로 사비성에 포위·고립된 유인원을 구원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유인궤는 신라군을 징발하여 부흥군과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당 조정에서는 웅진도독부의 존립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웅진도독 왕문도가 서기 660년 9월 28일에 삼년산성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웅진도독을 파견하지도 않았다. 다음 해에 가서야 웅진도독도 아니고 고구려 정벌 때 실수로 백의종군 중이던 유인궤를 임시 대방주자사라는 직함을 주어 원군도 없이 백제에 파견한 것이 전부였다. 사비성을 지키던 유인원이 웅진도독 역할을 수행하였을 수도 있지만 결코 유인원이 웅진도독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유인원이 웅진도독으로 임명된 것은 서기 662년 7월 이후였다. 이 시기 당은 백제 고토를 지배할 여력도 없었고, 의지도 부족하였던 것이다. 오로지 고구려를 원정하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음은 여러 사료가 보여주는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백제 부흥군으로부터 사비성을 구원하는 일은 또다시 신라군의 몫이었다.⁴⁶⁾

이리하여 유인궤의 주도하에 당과 신라군은 서기 661년 2월에 출병하여 웅진 쪽으로 진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사비성을 포위 중이던 백제 부흥군도 군사를 나누어 도침 등으로 하여금 웅진 쪽으로 이동하여 대비하게 하였고, 도침은 웅진강 어귀에 2책을 세우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유인궤와 신라군이 사방에서 일시에 공격하므로 퇴각하다가 1만여 명이 죽는 등 대패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도침 등의 웅진

45)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서경문화사, 1997), 222쪽.

46) 『삼국사기』 무열왕 7년(660) 10월 9일에 백제 부흥군을 칠 때 ‘태자와 여러 군대를 거느렸다(率太子及諸軍)’고 나오고, 11월 22일 논공행상 때는 중·하급 유공자들과 신라 투항 백제인들에 대한 포상만 실시하였다. 이로 보면 무열왕과 태자 등 고위급은 경주로 돌아갔더라도 ‘諸軍’은 여전히 해산하지 않고 삼년산성 인근 지역에 분산되지 않았을까 추측되어, 조기에 진압군 조직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방면 군은 임존성으로 퇴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승리를 거둔 유인케와 신라군은 사비성을 구원하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복신 등 나머지 사비 방면의 부흥군도 포위를 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때 아마도 임존성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퇴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비성으로 입성한 유인케는 유인원과 합류하여 군사들을 쉬게 하였고(사료 ㉔), 신라군만은 다시 남하한 복신 등의 부흥군을 쫓아 두량이성과 고사비성까지 진군하였던 것이다(사료 ㉕). 이때 선두부대인 대당군의 품일 휘하 일부가 3월 5일 먼저 두량이성에 도착하였으나 진지를 구축할 장소를 모색하면서 진영을 구축하지 않았다가 백제 부흥군의 기습을 받고 패주하였다. 그러나 신라 본군은 백제 부흥 세력의 거점인 중방고사성 지역에 무사히 진입하여 고사비성 밖에 진을 치고 3월 12일 전투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이때 신라군은 두량이성뿐만 아니라 고사비성(사료 ㉔)과 주류성(사료 ㉖)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분산 공격 때문에 신라군은 대군을 동원했는데도 한 달 엿새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고, 결국 군량미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사료 ㉗). 이에 신라군은 4월 19일에 군사를 돌려 총퇴각하게 된다. 그러나 신라군은 되돌아가던 길목인 賓骨壤에서 다시 부흥군을 만나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빈굴양에 주둔하던 백제군은 대당·서당 등 신라군의 선봉 부대가 지나가자 후미 부대인 하주군을 습격하였다. 타격을 입은 신라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계속 회군을 강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角山(임실)에서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된다. 각산의 백제 부흥군은 문충과 의광이 거느린 신라의 상주군과 낭당군을 기다려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라군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백제 부흥군이 도리어 패배하였고, 신라군은 승세를 몰아 각산의 屯堡까지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백제 부흥군은 2천 명이 참수되거나 포로가 되는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전사한 군사의 수가 2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각산에 진을 친 백제 부흥군의 규모도 만만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신라군은 고사비→빈굴양→각산 등을 거쳐 퇴각하였고, 신라 조정 또한 군대가 패배하였다는 소식에 놀라 김흠순 등에게 군대를 이끌고 구원토록 하였다. 그런데 구원군이 가시혜진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가소천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다.

이 가시혜진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 사이의 낙동강 연안으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加兮城’·‘加兮津’으로 나오는 곳인데 신라가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또 가소천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대를 거쳐 황강의 합천댐으로 흘러드는 까이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무왕 3년(663) 2월까지 거열성(경남 거창 거열산성), 거물성(전북 남원·장수 접경의 거시물성), 사평성(전북 임실 신평면)⁴⁷⁾ 등이 여전히 백제의 수중에 있었다고 나온다. 그렇다면 임실 → 남원 → 함양 → 거창 순으로 퇴각하였을 신라군이 거열성 관내의 가소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구원군이 되돌아갔을 정도로 안전하게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미 각산 전투에서 보았듯이 신라군에 대한 개별적인 저항이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복신 등의 백제 부흥군 세력이 승기를 잡고도 신라군의 뒤를 추격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새로운 가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즉, 신라군의 퇴각 때 諸軍이 모두 가소천 방향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대가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 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앞의 표1에서 보았듯이 신라군은 대당·서당·낭당의 왕정군과 상주·하주·남천주 지방군의 諸軍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출발점은 삼년산성이었으나 퇴각 지점은 가시혜진(경북 고령)이었다. 그리고 부대의 퇴각 순서는 대당-서당-낭당-상주-하주군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전투 과정에서 남천주군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무염과 육천을 남천대감으로 삼았다는 기록만 나올 뿐 다른 군에 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라 수군을 거느리고 웅진강구로 가 유인궤의 당군과 합세하여 별도로 움직였다고 추정한 견해가 있었다.⁴⁸⁾ 하지만 아래의 기록과 연관하여 보면 조금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47) 김태식, 『가야연맹사』(일조각, 1993), 123쪽; 전남 순천으로 보기도 한다(김영관, 앞의 책, 185쪽)

48) 김영관, 앞의 책, 137쪽.

(5월) 압독주를 大耶에 옮기고 아찬 종정을 도독으로 삼았다. 6월에 大官寺의 우물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 땅에 피가 흘러 그 넓이가 다섯 步가 되었다. 왕이 죽었다.⁴⁹⁾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

종래에는 무열왕의 사망과 금마군 재변 기사의 연관에 주목하여 무열왕과 익산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는데⁵⁰⁾, 오히려 대관사와 금마군 일대에서 접전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신라군의 총퇴각 시에 남천주군은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여전히 고사비성 일대에 남아 백제 부흥군을 견제하였을 수는 없었을까? 사료 ⑥에 나오는 남천 대감의 大監은 바로 隊大監을 말하는 것으로, 남천정에는 대대감이 1인으로 기병을 거느렸다. 이로 보면 신라 진압군이 구성될 때 남천 대감이 2인이 된 것은 기병을 더 보강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진압군을 구성하는 각 부대의 주둔지를 고려할 때 대당·서당·낭당이나 상주군(선산), 하주군(경산) 등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남천주군(경기 이천)은 북쪽 방향으로 귀환할 수도 있다. 물론 처음에는 남천주군도 함께 퇴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사비성을 떠나 빈골양(정읍 태인)에서 싸워 패배하였을 때 신라군 수뇌부는 퇴각 작전의 변경을 요구받았을 것이다.

사료 ⑥에는 백제 부흥군을 ‘百濟殘賊’이라고 표현한 데 반해 빈골양에서는 ‘百濟軍’을 만났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분명 백제의 정규군을 의미할 수 있다. 사비나 웅진과 연관된 동방·서방·북방의 정규군은 와해되었지만, 중방 고사성이나 남방 구지하성(광주 또는 나주)의 백제군이 남아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퇴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은 백제군이나 복신 등이 거느린 백제 부흥군 등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럴 경우 기병대가 위주였을 남천주군이 가장 적합한 별동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병이 위주였으므로 기동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기에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부흥 세력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백제 부흥군의 움직임 또한 견제할 수 있었다.

49) 移押督州於大耶 以阿滄宗貞爲都督 六月 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廣五步 王薨.

50) 백제 부흥군 토벌을 독전하다가 해를 입은 것(이도환, 앞의 책, 1997, 235쪽)으로 보거나 익산 세력이 추구한 친신라 우호정책의 반영이란 견해도 있다(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2010, 89쪽).

따라서 남천주군은 상당 기간 백제 지역에 잔류하였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신라는 중요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신라 본진이 퇴각함과 거의 동시인 5월에 압독주(경산)를 대야(경남 합천)로 옮겼던 일이다. 비록 진압군으로 백제 부흥군의 토벌에는 실패하였지만 백제 남방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 압독주를 경북 경산에서 낙동강 이서인 경남 합천으로 옮김으로써 유사시 즉각적인 신라군의 출동 태세를 갖춘 것이다.

그리고 남천주군은 만경강을 건너 논산 연산을 거쳐 삼년산군으로 퇴각하는 도중 다시 금마를 들이친 것이 아닌가 한다. 금마(익산)는 무왕 이래 대신라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고⁵¹⁾, 제석사, 미륵사 등은 신성한 불사리가 봉안되는 등 백제 왕실의 존엄성을 고양⁵²⁾시켜주는 지역이었다. 아울러 도침이 복신과 더불어 백제 부흥군의 중추를 이루었던 배경이 승군이었던⁵³⁾ 대관사나 미륵사 등이 도침에 우호적인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과 결부하면 신라에 대한 금마 세력의 저항 내지는 신라와 지역 세력(금마) 또는 승군(대관사) 사이에 벌어졌던 일과 관계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백제 부흥기 때 금마(익산)가 중요한 중심지로 부각하지 못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향후 고구려 유민의 보덕국이 세워질 땅으로 결정되는 수모를 받게 된 하나의 원인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기 661년에 재개된 백제 부흥군의 사비성 공략은 나당군의 공세로 웅진강구에 대패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더불어 신라군은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여 서기 660년의 정벌에서 벗어나 있던 두량이성과 고사비성 그리고 주류성 등의 남방 고사성 일대에까지 진군하게 된다. 하지만 3월 12일부터 개시된 신라의 공세는 실패하고 마침내 4월 19일 총퇴각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신라군이 다시 빈골양(정읍 태인)에서 백제 정규군에게 패배를 당하자 군사를 나누어 대당·서당·낭당(왕경 주둔), 상주군(선산), 해주군(경산) 등은 임실 → 남원 → 함양 → 거창을 거쳐 동쪽으로 퇴각하는

51) 정재윤, 「미륵사 사리봉안기를 통해 본 무왕·의자왕대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37(2009), 45쪽.

52)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7(2009), 17쪽.

53) 노중국, 앞의 책, 104쪽.

동안 기병대가 위주였을 남천주군이 별동대 역할로 여러 지역을 전진하며 시선을 어지럽히고 부흥군의 움직임 또한 견제하였다.

그 결과 복신 등 부흥군이 퇴각하는 신라군을 추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열성, 거물성, 사평성 등 신라군이 퇴각하는 부근의 지역별 백제 부흥군도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남천주군은 금매(익산)의 천재지변이란 형태의 군사 행동을 야기하면서 백제 지역에 혼란을 가중시킨 듯하다.

IV. 맺음말

백제 부흥운동은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백제는 ‘왕조의 단절이나 국가의 멸망에 따른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위험한 국가적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유지해나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백제인들은 왕통 회복과 국정 재건만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여겼고, 당군이 돌아가자 즉각적으로 사비성 재탈환에 나섰다.

그런데 사비성 탈환이 늦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대당 투쟁에 필요한 장기적인 저항의 근거지이자 수도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백제는 서기 475년 고구려의 침공 시 웅진으로 천도하여 국가를 재건하였던 유사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나당군의 침략이 비켜간 금강 이남의 남쪽 지역, 즉 ‘삼한에서 가장 기름진 곳인 익산-김제-부안-정읍 일대의 중방 고사성 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한 듯하다.

한편 서기 661년의 웅진강구와 두량이·고사비성 전투는 이러한 백제 부흥군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나당 연합군의 반격이었다. 서기 661년 3월에 나당군은 웅진 지역의 강어귀에서 도침이 이끄는 웅진 방면 부흥군을 공격하여 승리하였고, 이에 복신 등의 사비 방면 부흥군은 포위를 풀고 새로운 근거지였던 주류성 일대로 내려갔다.

더불어 신라군은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여 두량이성(원주 이서)과 고사비성(정읍 고부) 그리고 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 등의 남방 고사성 일대에까지 진군하게 된다. 하지만 3월 12일부터 개시된 신라의 공세는 실패하고 마침내 4월 19일 총퇴각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신라군은 빈골양

(정읍 태인)에서 백제군에게 다시 패배하자 군사를 나누어 대당, 서당, 낭당, 상주군(선산), 해주군(경산) 등은 임실 → 남원 → 함양 → 거창을 거쳐 동쪽으로 퇴각하는 동안 기병대 위주의 남천주군이 별동대로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부흥 세력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움직임 또한 견제하였다. 이에 복신 등 부흥군은 퇴각하는 신라군을 추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열성, 거물성, 사평성 등 신라군이 퇴각하는 부근의 지역 부흥군도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남천주군은 금마(익산)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하여 백제 지역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국 서기 660년 7월의 사비성 함락과 의자왕의 항복으로 시작하여 서기 661년 6월의 신라 무열왕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나당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의 공방은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백제 부흥군은 2만 이상의 신라 정벌군을 물리침으로써 남방 지역을 복속하는 등 일시에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사비와 웅진 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의 승리로 ‘南方諸城’이 모두 복신 등의 부흥군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사비와 웅진 등 백제 심장부가 당군의 수중에 있는 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실패만 야기한 것이기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젠가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는 불안함이 ‘백제 땅에 흘러넘쳤고, 부흥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참 고 문 헌

『구당서』, 『삼국사기』, 『일본서기』, 『자치통감』.

<당유인원기공비>.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김병남,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전북사학』 31, 2007, 13-42쪽.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7, 2009, 7-31쪽.

김수미, 「백제부성의 실체와 웅진도독부 체제로의 전환」. 『역사학연구』 28, 2006, 31-60쪽.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2010, 61-93쪽.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2005.

_____,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7, 227-256쪽.

김중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73-103쪽.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_____,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79-116쪽.
도야마 미쓰오 저, 이성범 역, 『우리가 몰랐던 왜군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 전투』.
J&C, 2002.

박현숙, 「백제 사비시대의 지방통치와 영역」.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1998, 169-215쪽.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203-230쪽.

_____, 「사비도성의 방비체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7, 99-124쪽.

심정보,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160-221쪽.

_____, 「부흥군의 봉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142-160쪽.

우재병, 「백제 서해안지역 죽막동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왜인의 흔적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33, 2010, 273-299쪽.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_____,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1999.

- _____, 「백제 부흥운동의 시작과 끝, 임존성」.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167-185쪽.
- 이상훈,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2011, 163-192쪽.
-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 정재윤,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 정책 -완산주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8, 2002, 127-153쪽.
- _____, 「미륵사 사리봉안기를 통해 본 무왕·의자왕대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37, 2009, 33-62쪽.
- 정효운, 『고대 한일 정치교섭사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최병운, 『전북역사문헌자료집』 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 편. 전라북도, 2000.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국 문 요 약

백제 부흥군이 일어난 배경은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백제는 왕조의 단절이나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위험한 국가적 상황을 안정시켜나가는 과정이었다. 서기 660년 7월 18일에 백제 조정이 항복한 후 즉각적으로 사비성 재탈환에 나선 것도 이러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은 사비성 탈환이 늦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대당 항쟁에 필요한 장기적인 근거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주목받은 곳이 중방 고사성 지역이었다.

이에 서기 661년에 나당 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고자 두량이(완주 이서)·고사비성(정읍 고부)·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 등을 공격하였지만, 백제 부흥군은 2만 이상의 신라군을 물리침으로써 백제 남방 지역을 모두 복속하는 등 일시에 세력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백제 부흥군은 심장부인 사비와 응진 등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는 나·당 연합군이나 백제 부흥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담보하지 않아 부흥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였다.

투고일 2011. 12. 16.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13.

주제어(keyword) 백제(Baekje), 부흥군(Reconstruction forces), 고사성(Gosa seong), 두량 이(Duryangi), 주류성(Juryu seong)